한국보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 Care
2019, Vol. 19, No. 3, pp. 99~113
http://dx.doi.org/10.21213/kjcec.2019.19.3.99

어머니가 인식하는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 및 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Mother's Perceived the Adaptation Process and Program of One-year-old Toddlers in Daycare Center

정 효 진[1)] 최 현 숙[2)]
Hyo Jin Chung Hyun Suk Choi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를 둔 어머니가 인식하는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 및 적응프로그램에 관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며 첫 아이가 18개월 또는 20개월에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한 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집단 및 개별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임신 또는 입소 통보전화를 받고 갑작스레 어린이집 입소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자녀의 입소를 위해 어린이집 첫 방문 시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어머니가 본 교사의 인상과 말투, 표정 등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분리불안 행동을 보이는 영아뿐 아니라 어머니도 적응과정을 겪었다. 어머니와 교사의 소통과 노력을 통해 어머니들은 영아가 적응해나감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만 1세 영아의 적응과정을 통해 어머니가 인식한 적응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프로그램 안내 및 실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의 만 1세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만 1세 영아
어린이집 적응
적응프로그램
어머니의 인식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교신저자
(forpooh7@naver.com)

I. 서 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개인과 개인이 관계를 형성하고 삶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안식처로서 심신의 긴장을 풀고 휴식과 안정을 얻어 정서적 만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성연, 백경숙, 옥경희, 전효정, 전연진, 2009). 가정은 출산과 양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거 가정에 국한된 양육의 개념이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 및 무상 보육의 실시로 인해 사회로 확대되었다. 양육의 개념의 확대를 통해 영아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분리되어 새로운 상황에서 친숙하지 않은 일상에 적응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Datler, Ereky-Stevensa, Hover-Reisner, & Malmberg, 2012).

영아는 많은 감각과 반사 행동, 신호와 몸짓을 가지고(Bruner, 1973) 출생 직후 맞게 되는 물리적 환경에 적응한다. 그 후 어머니에게서 분리-개별화되고 심리적으로 독립하며(Mahler, Pine, & Bergman, 1975) 이후 가정과는 다른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한 영아는 부모와 헤어져 분리불안을 느끼며 다양한 형태의 불안행동 및 부적응행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 낯선 환경과 새로운 생활패턴에 적응해야한다.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영아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해결해주던 문제들을 영아 스스로 또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게 되며 또래와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관철하기도 한다(허영순, 이주리, 2010). 영아와 어머니의 안정적인 분리과정을 통해 영아는 낯선 성인인 교사와 하루일과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즐거운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입소 후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나희, 황윤세, 2016). 이러한 초기 적응과정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주요한 영향 요인이 되고 있다(김유환, 김경숙, 2012). 또한 영아가 어린이집에 원만하게 적응해 나가는데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들 관계의 질적인 차이에 따라 영아가 어린이집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신유림, 윤수정, 2009; 오경희, 2010). 어린이집 초기 적응의 경험은 향후 사회성 발달과 상급기관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영아의 초기 적응은 발달 과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희선, 이은하, 박희경, 2013; 박선준, 김성원, 2017; 이정희, 박은주, 2012; Snell, Hindman, & Belsky 2015).

NAEYC(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on for Young Children)에서는 협력적, 발달적으로 적합한 유아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 협력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William & Laura, 1987). 영아를 양육하는 성인들 사이의 정보 교환은 영아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부모와 교사가 함께 영아에게 제공할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서 영아의 필요를 이해하고 영아에 대한 그들의 목표를 확인하며 조화시킬 수 있다. 부모와 교사는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와 교사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는 교육대상이 가장 어린 영아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고 강조된다. 부모와 교사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는 유아교육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영아의 초기 적응에 있어서는 그 어느 상황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부모와 교사는 영아를 매개로 하여 맺어지는 간접적인 관계로서 부모는 교사를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아의 하루일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교사는 부모를 통해 영아의 평소 생활습관, 성격과 성향 및 부모의 자녀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조형숙, 김현주, 김명하, 김명정, 2017).

교사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이다. 교사와 영아의 친밀관계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이며(이경님, 유혜선, 2014; 임민영, 2016) 교사와 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과 의존이 적을수록 영아가 적응을 잘 한다(양숙경, 문혁준, 2010). 지연회(2018)는 교사의 경력이 증가할수록 영아의 초기 적응 수준이 높아졌으며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더 잘한다고 하였고, 영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 교사는 영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법과 흥미유발을 위한 호기심 자극방법을 사용하여 영아의 적응을 지원하였다(권현조, 배지희, 2018).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또 다른 주요 변인은 부모이다. 부모의 적극적 참여는 영아가 기관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정현희, 오선진, 2017) 부모와 교사 간의 형식적, 비형식적 상담을 통해 부모가 제공한 영아 정보를 통해 교사는 영아를 더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영아의 기관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혜진, 2009; 이성세, 2012). 이처럼 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영아가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행동의 변화는 영아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많은 연구들이 초기 적응 시 영아가 적응곤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구수연, 2005; 김상림, 2012; 김연숙, 2009; 김인경, 2016; 김현경, 2013; 박선준, 2016; 박현주, 2016; 배미연, 이순복, 2014; 유소율, 허영림, 2013; 이선영, 2015; 이연우, 성영화 2016; 이은경, 2014; 이지애, 2013; 이현숙, 2008; 이화순, 2010; 임명희, 강성희, 2007; 정은숙, 2010; 정지혜, 서영민, 2017; 정희정, 2013; 최숙경, 2014; 하란영, 2011; 하맹화, 2013; 호인옥, 조혜경, 2013; 홍승혜, 2017; Hughes, Plewis, & Pinkerton, 1979).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영아의 성별과 성별에 따른 기질에 차이를 보이며(엄일숙, 2013) 영아의 경우 월령에 따른 발달차가 존재하며 월령이 높은 영아가 적응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임민영, 2016)고 하였다. 최정선과 정가윤(2013)은 만 0~2세 영아의 초기 적응과정에서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 월령의 특성에 따른 적응과정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2018년 보육통계에 의하면 전체 보육아동의 1,415,742명 중 0세는 126,793명, 만 1세는 319,016명이며, 행정안전부(n.d.) 주민등록상의 인구통계를 보면 2018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이 된 0세는 317,685명이며 만 1세는 361,652명으로 인구 통계적으로 어린이집 첫 입소 시기가 0세보다 만 1세가 높을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영아의 초기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영아의 기질, 부모와 교사의 관계 및 영아와 교사의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부분 양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을 영아와 함께 경험하는 어머니가 주체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1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와 첫 분리를 경험한 어머니가 인식하는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과 적응프로그램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가 인식하는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가 인식하는 만 1세 영아의 적응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총 4명의 어머니로,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첫 아이가 18개월 또는 20개월에 어린이집에 입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비 면담을 통해서 연구의 내용과 방향에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전업주부이며, 2명의 어머니는 둘째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 각 기관별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및 자료 수집

1) 선행연구 고찰 및 면담내용

본 연구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 및 적응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기 전 선행연구물에 대한 고찰과정을 거쳤다. 영아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물을 참고하여 예비 및 심층 면담에서 다룰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질문 구성과정에서 공동연구자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질문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최종 질문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입소 이유', '어린이집 선택과정과 영향', '어린이집 적응과정',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 등이다.

2) 예비 면담

본 면담을 진행하기 전 연구자는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만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고 있는 어머니 6명을 선정하여 예비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카페나 연구 참여자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느낀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 및 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의 전반적인 목적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기초 자료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자 4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3) 심층 면담

본 연구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 및 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양적연구로 진행이 되어 어머니가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연구 참여자	나이	직업	자녀의 나이	자녀의 성별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입소당시의 개월 수	특이사항
1	A	30	전업주부	만 1세	남	민간	20개월	둘째 출산예정
2	B	41	전업주부	만 1세	여	직장	20개월	
3	C	38	전업주부	만 1세	남	민간	20개월	둘째 출산예정
4	D	37	전업주부	만 1세	남	가정	18개월	

인식하는 초기 적응과정 및 적응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가졌으므로 개인면담과 집단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Creswell(2010)은 사례연구는 구체적인 상황, 현상 및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참여자의 대상에 따라 어떠한 현상을 발견하며,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특정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고 기존의 가지고 있던 의미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아, 초기 적응과정, 어머니가 인식하는 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본 연구자들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면밀하게 알아볼 수 있었으며, 어머니들이 경험한 사례 및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 집단면담은 2018년 4월 25일부터 2018년 4월 30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1차 집단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와의 라포(Rapport)형성과 연구 참여자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하는 이유와 어린이집 선택과정,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2차 집단면담은 2018년 6월 19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적응기간 어머니와 영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자택과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좀 더 듣고자 하는 부분은 개별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개별면담은 2018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면담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주로 전화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은 연구자가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연구 참여자가 이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실제 면담 과정에서의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였다. 1차면담을 진행하기 앞서 연구 참여와 관련된 고지된 동의를 받았으며, 각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적절한 사례를 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된 면담 내용은 녹취록으로 전사하여 질적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의 과정은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통해 수집된 내용 전사본 A4종이 81매를 활용하여 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과 동시에 자료 분석을 실시하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전사본을 수차례 반복하여 정독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어휘 및 사전, 범주화를 위한 주제나 패턴을 자유롭게 메모하였다. 최초 범주 목록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범주를 재배열하고 재조직하며 2차 범주화하였다. 2차 범주화를 통해 도출된 주제어를 공동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범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어 생성의 단계에서는 최종 범주에서 나온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자와 협의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

1) 어린이집 입소 결정하기

두 명의 연구 참여자는 둘째의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지면서 첫째 자녀 육아가 점차 버거워짐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 아이를 두 돌 되기 전까지는 제가 데리고 있으려 했는데, 둘째를 임신하면서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도 급하게 알아보다가 결정해서 보냈어요.
> (2018. 4. 25. 연구 참여자 A, 집단면담, 민간)

> 두 돌 지나서 아이가 말하고 나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갑자기 둘째가 생겨서(웃음) 조금 일찍 당겨서... 결정했어요. 몸이 불어나면서 아이와 잘 못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 체력을 도무지 따라가지도 못하잖아요.
> (2018. 4. 25. 연구 참여자 C, 집단면담, 민간)

어린이집 입소통보 전화를 받고 바로 입소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입소 포기를 한다면 당해뿐만 아니라 다음해 입소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게 되었다.

제가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인데, 내년(2019년)에 입소를 시키려고 입소대기를 넣다가, 올해 자리가 났고 내년에는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셔서 하루 만에 결정했어요.
(2018. 4. 25. 연구 참여자 B, 집단면담, 직장)

천천히 보내려고 입소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2월 말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리가 있는데 입소하겠냐고 물으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5시 이전까지 전화가 없으면 다음 아이에게 기회가 넘어간다고 하셔서 전화 받고 남편이랑 상의하고 오후 5시 이전에 입소하겠다고 전화드렸죠.
(2018. 4. 25. 연구 참여자 D, 집단면담, 가정)

2) 첫 인상, 30분 내의 선택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서 첫 방문시 교사와 원장의 이미지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30분 동안 진행된 상담 분위기와 오가며 만나는 교사들의 행동, 인상, 표정 등을 통해 어린이집을 선택하였다.

음... 사실 주변의 엄마들 말만 듣고 가긴했지만 제 스타일과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상담을 갔는데 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일단 정말 들었던 대로 되게 좋았어요. 잠깐이지만 한 30분정도거든요. 제가 거기만 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몇 군데 갔었는데. '좋은 곳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보기에 좀 믿음직스럽다고 해야 되나?
(2018. 4. 25. 연구 참여자 A, 집단면담, 민간)

첫 인상 중요하잖아요. 저도 제 기준에서만 인상을 보고 주관적이지만... 여기(선택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한 번씩 얘기도 해주시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머문 시간이) 30분이었는데 약간 공주님 같은 느낌? 선생님이 되게 온화해보였어요. 딱딱 끊어지게 말씀하시거나 약간 냉정한 곳도 있었고, 다짜고짜 '우리 어린이집 보내주세요.'라는 곳도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 선생님은 되게 냉철하게 "안전한 곳에 한 군데 더 넣으시고요."라면서 무조건 와라 식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해주셔서 좀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2018. 4. 25. 연구 참여자 C, 집단면담, 민간)

둘째가 생겼다거나 꼭 보내야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안 보낼 생각이었는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이유는 그곳이 직장어린이집이여서예요. 직장어린이집의 특징이 회사에서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고 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좋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오티때 교사들 인상도 많이 살펴봤어요. 순간순간 보여지는 교사의 표정도 몰래 지켜보고요.
(2018. 4. 25. 연구 참여자 B, 집단면담, 직장)

저는 갑작스럽게 원에서 전화가 왔고 그 다음날 바로 상담을 갔어요. 저 역시 교사를 미리 본 것은 아니였지만 한 30분 정도 어린이집에 머물면서 그 어린이집의 환경이 주는 느낌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보내게 된 듯해요.
(2018. 4. 25. 연구 참여자 D, 집단면담, 가정)

3) 새로운 환경에 엄마도 영아도 적응 중

낯선 사람이 있는 낯선 장소에서 엄마와 분리를 경험한 영아들은 심한 분리불안을 느꼈다. 또한 불안해하는 자녀를 보며 어머니도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며 어린이집 입소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

○○는 이틀 만에 엄마와의 분리를 하였거든요. 셋째 날부터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면서 "잉~"하고 울기도 하였지만 이내 교실 안에서 울음을 그쳐서 수월하게 적응을 한다고 생각하였어요. 근데 어린이집 등원하고 약 1주 정도 지난 후부터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매일 매일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것은 전쟁이었어요. 안간다고 우는 애를 매일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는 것은 정말정말 지옥이었어요.
(2018. 7. 9. 연구 참여자 A, 개별면담, 민간)

OO이는 눈뜨자마자 “안 갈꺼야.”라며 일어나려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준비 다하고 나와서 집 현관에서 안 가겠다고 울며 몸부림치며 거부를 하기도 했어요. 5분부터 점진적인 분리를 했는데 20여분 분리하던 날, 교실에서 엄청 울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간 후에도 한동안 울고 짜증내고 점심식사가 나왔는데도 저보고 먹여달라고 울어서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죄송해서 그냥 식사 안하고 하원했어요. 하원하고 나오는 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어린 애를 왜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했을까? 후회도 하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이 많았어요.
(2018. 7. 12. 연구 참여자 B, 개별면담, 직장)

어린이집 하원 후 가정에서도 분리불안 증상은 지속되었다.

집에 오면 저에게 안 떨어졌어요. 거의 안고 있으라 하고 밤에도 자다가 울면서 엄마를 찾았어요.
(2018. 7. 9. 연구 참여자 A, 개별면담, 민간)

어린이집에서 오면 일단은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안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엄마가 화장실 갈때도 같이 가거나 화장실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해서 한동안은 문 열고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지만 저는 제 침대에서 아이는 혼자서 범퍼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밤에 저를 찾는 횟수가 자꾸 늘어서 한동안은 범퍼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잤어요.
(2018. 7. 11. 연구 참여자 D, 개별면담, 가정)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신기하게도 어린이집에서 많이 울거나 힘들었던 날도 집에서는 안정적으로 놀이했어요. 물론 엄마 껌딱지는 여전해서 안아 달라하고 딱 붙어서 놀이하길 원했지만 그건 그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아주 많이 변했다고 볼 순 없네요.
(2018. 7. 12. 연구 참여자 B, 개별면담, 직장)

평소에 동네 엄마들과 모이게 되면 저희 아이는 때리는 편이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들 모임에 나갈 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릴까봐 항상 긴장하였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도 친구들을 때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행동이 나왔어요. 어린이집 등원하고 한 한달동안 다쳐서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니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맞는 편이였어요.
(2018. 7. 14. 연구 참여자 C, 개별면담, 민간)

4) 소통을 통한 적응의 신호

교사가 써주는 알림장을 통해 부모는 어린이집 내에서 활동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점차 자녀가 적응해나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제가 노트에 뭘 써서 보내면 선생님이 부담되고 귀찮을까봐 몇 번은 그냥 안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을 해주시더라구요. 좀 써달라고. 선생님이 세세한 것까지 다 일일이 적어주시고 그렇게 했다 했다하니까 적응이 더 쉽게 잘 된 것 같아요.
(2018. 6. 22. 연구 참여자 C, 집단면담, 민간)

키즈노트로 “OO이가 단체생활을 안 해봐서 기다렸다가 먹기. 순서대로 하기 같은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계속 집에서 더 지도해주면 좋은 것들을 알려주세요. 제가 집에서 단체생활을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2018. 6. 22. 연구 참여자 A, 집단면담, 민간)

제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바에 대해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면 그걸 존중해주시고 또 아이에게도 무언가를 할때 “OO아, 이거 할래?”묻고 아이가 싫다고 하면 들어줄 수 있는 선 안에서는 되도록 들어주시려는 게 보여서 마음이 놓이고 고마워요.
(2018. 6. 22. 연구 참여자 B, 집단면담, 직장)

매일 노트에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저희 선생님은 주로 아이의 칭찬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2018. 6. 22. 연구 참여자 D, 집단면담, 가정)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 가정에서 어머니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이랑 초반에는 아침, 저녁 키즈 노트로 아이 보낼 때 오늘 상태 어땠는지 미리 말씀드리고 하원하고 나면 선생님이 "△△이 오늘 어땠어요."라고 해 주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또 댓글로 그날그날 "오늘은 집에 와서 애가 우울해했습니다, 블록을 오래했어요."처럼 세세하게 메모를 해드렸어요. 어린이집에서 제가 첫날 갔을 때 찍은 동영상이랑 선생님께서 맨날 보내주시는 사진을 집에 와서 꾸준히 보여줬어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이거 했네. OO이가 공 찼네. △△이는 이거 만들었네." 하원하면 키즈노트를 항상 같이 보고. 또, 제가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래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하루 종일 △△한테도 어린이집에 가면 즐겁다는 것을 제가 계속 푸쉬(push)를 하고...
(2018. 6. 22. 연구 참여자 A, 집단면담, 민간)

선생님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나 교실 내에서 찍었던 사진을 다 뽑아서 아기가 노는 벽에 붙여놓고 "선생님이 책 보여줬지? 선생님이 노래 불러줬지?" 이야기해주고 어린이집에서 부르는 노래를 찾아 제가 따라 불러보기도 했어요. 선생님께 등하원시에 "OO이가 집에서 '통통통통통' 노래 좋아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에서 놀이시간에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선생님과 제가 계속 상의해가면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2018. 6. 22. 연구 참여자 B, 집단면담, 직장)

저희 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사진 보여주면서 "얘는 누구지? 얘는 누구지?" 계속 친근감 느끼게, 친구들 얼굴 익히게 해 줄라고 하고 있어요.
(2018. 6. 22. 연구 참여자 C, 집단면담, 민간)

5) 어머니가 생각하는 어린이집 적응완료의 의미

대부분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적응완료는 자녀가 어린이집 내에서 편안히 식사하고 낮잠을 잔다는 것이었다.

저는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식사거든요. 잘 안 먹는 아이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잘 먹지도 않는 애가 집에 오면 "우유. 밥. 맘마"를 막 찾고 먹어요. 그 모습을 보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못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가장 걱정했던 것이 수면이랑 식사였는데, 수면은 의외로 자요. 선생님이 잘 잔다고 하시고 사진도 보내주셔서 맞는 것 같은데... 먹는 거는 솔직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진을 보내면 식판을 다 짤라서 보내요. 헤어질 때 기분 좋게 "엄마 안녕" 하면서 수면과 식사 이 모든 것이 딱 됐을 때 적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18. 6. 22. 연구 참여자 C, 집단면담, 민간)

등하원시에 얼마나 기분 좋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식사 양과 수면은 기본인 것 같고(적응완료에), 사진을 보면 아직 우리 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반 아이들이 다 재원한 아이들이다보니 신입인 우리 아이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제가 보낸 애착인형들고 있어서... 아직은 적응이 덜 된듯해요. 또 선생님과 아직 친밀감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원 할 때 '선생님 사랑해 해줘야지. 뽀뽀해줘야지'하는 것 보면 '아이가 정말로 선생님과 친밀감이 형성되면 먼저 달려 갈텐데...'하는 생각을 하면 아직 적응이 덜 되었다 생각을 하였죠.
(2018. 6. 22. 연구 참여자 A, 집단면담, 민간)

낮잠을 자는 게 최대의 관건이라 저는 낮잠을 잤다라고 하면 일단은 적응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 6. 22. 연구 참여자 B, 집단면담, 직장)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잘 수 있으면 적응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요. 아이 입장에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아

이가 그 공간을 믿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여기는 것이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면 적응이 완료 되었다고 생각해요.
(2018. 6. 22. 연구 참여자 D, 집단면담, 가정)

2. 어머니가 인식하는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어머니가 인식하는 기관별 적응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프로그램 안내 시간은 어린이집 상담 시간 중 초기 적응 및 적응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느낀 시간이다.

표 2.
어린이집 초기 적응프로그램

	연구 참여자	어린이집 유형	초기 적응프로그램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안내 시간	프로그램 안내문	프로그램 실행자	프로그램 실시기간
1	A	민간	원장	5분 내외	책자 없음	담임교사	2일
2	B	직장	원장	30분 이상	책자 있음	원장, 담임교사	4주
3	C	민간	원장	10분 내외	책자 없음	담임교사	2주
4	D	가정	원장	15분 내외	책자 없음	담임교사	2주

1) 적응프로그램의 안내

입학상담 시 적응프로그램 안내는 대부분 원장이 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은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적응프로그램 전반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였으나, 나머지 어린이집에서는 구체적인 적응프로그램 안내가 없었다.

저희는 전체 신입원아 대상으로 오티 때 거의 1시간반 동안 원장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적응프로그램 비중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적응프로그램에 관련된 교육 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주시구요. 그래서 적응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셨구요.
(2018. 6. 19. 연구 참여자 B, 집단면담, 직장)

저는 지금 처음 받아봤어요. 전혀 모르는 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 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냥 뭐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후) 아, 그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적응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라고는 받지는 않고...
(2018. 6. 19. 연구 참여자 A 집단면담, 민간)

저는 원장선생님이랑 처음에 상담할 때는 그.. 아, 적응은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하셔도 되요 라고 그 어떤 큰 틀 없이 그냥 아이에 맞춰서 해라 라는 식으로 맨 처음에는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어린이집의 머무는 시간 중 한 30분 내외였던 것 같아요.
(2018. 6. 25. 연구 참여자 C, 집단면담, 민간)

저는 입학 상담 때 원장님께서 적응기간과 시간만 알려주시고 그 기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한다고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2018. 6. 25. 연구 참여자 D, 집단면담, 가정)

2) 적응프로그램의 실행

적응기간은 영아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담임교사가 적응상태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보육교사의 인력이 보다 여유로운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보조인원이 지원했으며, 대부분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원장과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날 그 날마다 알려줬던 것 같아요. 오늘 엄

마는 아이가 적응을 잘하니까 엄마는 오늘부터 나가계셔도 되고요.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옆에 계시고 내가 어! 저도 나가있으면 안돼요? 라고 했더니? "아뇨. 어머님은 그냥 거실에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니까 그거를 지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2018. 6. 25. 연구 참여자 C, 집단면담, 민간)

저는 원장선생님이랑 처음에 상담할 때는 적응은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하셔도 되요."라고 어떤 큰 틀 없이 그냥 아이에 맞춰서 해라라는 식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막상 첫날 아이를 데리고 수업을 들어 가보니까 체계가 없어서 개개인 선생님 반마다 자기 성향대로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에 맞춰서. 담임선생님은 "적응을 좀 빨리 끊는 편이예요. 애랑 엄마랑 빨리 분리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라고 약간 푸쉬(push)가 있으셔서 바로 다음 날부터 분리했어요. 원장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그 포인트가 달랐어요. (중략) 제가 또 첫애를 보내는 입장이니까 당황해서 둘째 날 애기만 보냈어요.
(2018. 6. 19. 연구 참여자 A, 집단면담, 민간)

매일 아침 담임 선생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라고 매일 안내해주셨어요.
(2018. 6. 25. 연구 참여자 D, 집단면담, 가정)

저희 원도 원장선생님이랑 주임선생님이랑 적응기간 아기 반을 계속 도움을 주셨어요. 저랑은 원장님이랑 말씀을 더 나눴고 분리 시작하면서 하원 때는 담임 선생님이랑 일과에 대해서 쭈루룩 안내받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실외활동 나갈까요?, 다음 주부터는 밥을 먹어 볼까요?" 이렇게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저와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했어요.
(2018. 6. 19. 연구 참여자 B, 집단면담, 직장)

적응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영아의 발달정도에 따라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시기간은 기관에 따라 상이하였다.

○○는 이틀 만에 엄마와의 분리를 하였거든요. 셋째 날부터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면서 "잉~"하고 울기도 하였지만 이내 교실 안에서 울음을 그쳐서 수월하게 적응을 한다고 생각하였어요.
(2018. 7. 9. 연구 참여자 A, 개별면담, 민간)

1주일 정도는 잘 들어갔어요. 하루에 1시간~2시간 정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선생님께서 30분정도 분리 해보자고 하셔서 아이에게 말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였어요.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자고 하면 울고 짜증내고 떼 부리고... 그러다 점점 어린이집 가는 내내 울었어요, 문 앞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문을 붙잡고 울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들어가서 아이와 함께 했어요. 보통 아이들은 1주일정도 엄마랑 있는데 저는 그렇게 3주를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2018. 7. 11. 연구 참여자 D, 개별면담, 가정)

저희는 적응프로그램을 4주 정도 한다고 하여 처음에는 5분부터 점진적인 분리를 했는데 20여분 분리하던 날, 교실에서 엄청 울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간 후에도 한동안 울고 짜증내고
(2018. 7. 12. 연구 참여자 B, 개별면담, 직장)

1주일정도는 잘 갔어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30분씩 분리해보자 하여 분리하였는데 분리 첫날도 잘 있었어요. 둘째 날부터 1시간, 셋째 날부터는 2시간 씩 점점 시간을 늘려갔어요. 근데 셋째 날부터인가 어린이집을 가려면 코너를 돌아야 하는데 코너를 도는 순간부터 울었어요, 원에 들어가면 눈물을 금방 그친다 하여 맏고 일주일 동안 울어도 보냈는데 적응 3주차에 아이가 아파서 1주일동안 어린이집에 못가고... 적응 4주차에 다시 재적응을 시작하였어요.
(2018. 7. 14. 연구 참여자 C, 개별면담, 민간)

3) 어머니가 바라는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

어머니들은 대체로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편

적인 적응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어렵다면 적응과 관련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 적응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보편화라고 해야 될까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 누리과정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 넷만 해도 모두 다른 케이스니까, '체계화해서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2018. 6. 25. 연구 참여자 B, 집단면담, 직장)
> 저는 이틀 만에 분리해서 대부분의 어린이집도 이렇게 빨리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보편적인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 (2018. 6. 19. 연구 참여자 A 집단면담, 민간)

> 1주일이 지난 뒤에 아이와 엄마가 분리되었을 때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관실이라고 하나요? 참관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2018. 6. 25. 연구 참여자 D, 집단면담, 가정)

> 어린이집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모든 어린이집이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앉아있을 때 선생님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듯해요.
> (2018. 6. 25. 연구 참여자 C, 집단면담, 민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과 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이다. 본 사례연구는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입소하는 만 1세 영아의 적응과정을 살펴보고 어머니가 인식하는 적응프로그램을 알아봄으로서 향후 만 1세 영아를 위한 적응프로그램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세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선택하였다. 둘째 자녀의 임신 또는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기 문의 전화를 했다가 당해년 입소는 가능하지만 후년 입소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에 급하게 결정하였거나, 대기명부에 올린 어린이집으로부터 입소가능 연락을 받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 자녀의 입소를 위해 어린이집 첫 방문시 교사 또는 원장의 인상과 말투, 표정 등이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김지혜, 이대균(2013)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교사들의 표정, 말투, 인상 등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과 어머니들은 자녀가 생애 첫 만나는 교사인 만큼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교사를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정명숙, 황해익(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둘째, 만 1세 영아의 적응과정을 통해 본 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별 프로그램 안내, 적응기간과 내용 및 진행방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입학상담 시 적응프로그램 안내는 대부분 원장이 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은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적응프로그램 전반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였으나 나머지 사례의 어린이집에서는 구체적인 적응프로그램 안내가 없었다. 적응기간 담임교사가 적응상태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보육교사의 인력이 보다 여유로운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보조인원이 지원되었으며, 대부분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원장과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 1주일 내외로 어린이집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머물렀고 점진적인 분리를 통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다. 놀라운 것은 입소 이틀 만에 자녀를 분리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적응을 빨리 끊는 편"이라는 표현처럼 영아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의 성향에 따라 적응프로그램 운영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아변인 또는 영아-어머니관계보다는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라고 한 박정화, 나종혜(2017)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적응기간 동안 영아들은 낯선 환경에 대해 울음으로 표현하였으며,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이내 엄마에게 와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엄마와 함께 보육실에 있는 시기에는 등원을 잘 하던 영아들이 엄마와의 분리 과정에서 등원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처

럼 낯선 사람이 있는 낯선 장소에서 엄마와 분리를 경험한 영아들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분리불안을 느꼈다. 또한 불안해하는 자녀를 보며 어머니도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며 어린이집 입소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 이는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적응 하위요소인 '긍정적 감정'에 부적상관이 나타난 문애현, 조안나(201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적응과정을 통해 영아들은 점차 적응의 신호를 보였다. 교사가 써주는 알림장을 통해 부모는 어린이집 내에서 활동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점차 자녀가 적응해나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알림장을 통한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좀 더 안정적이며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는 김인경(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 가정에서 어머니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가정에서의 자녀의 기분상태, 가정에서 한 놀이 등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어린이집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제시하기, 어린이집에서 배운 동요를 함께 불러보기 등 어린이집이 신뢰할 수 있고 즐거운 곳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만 1세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어머니가 생각하는 적응완료는 자녀가 어린이집 내에서 편안히 식사하고 낮잠을 잔다는 것이었다. 이는 영아는 믿을 수 있는 공간에서만 낮잠과 식사가 이루어진다는 정은숙(2010)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영아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식사와 낮잠을 통해서 서서히 적응을 완료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는 환경탐색을 기초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 개발(이승아, 2018),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심선영, 2016) 등이 있으나 국가수준의 통합적인 적응프로그램이나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정, 민간,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에 앞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연구 참여의 의사를 밝힌 어머니가 제한적이다 보니 국공립, 부모협동,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의견을 듣기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와 심층면담 및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과 관련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둘째,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를 둔 어머니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이기에 담임교사인 보육교사의 의견도 함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 관련하여 다른 연령과 동일하게 접근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적응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다면 0~5세의 적응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의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부모, 영유아의 기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연령별 통합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국가 수준의 1세의 영아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경화(2013). 부모-영아 애착, 부모-교사 협력, 그리고 교사-영아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혜진(2009). 부모-교사 협력행동과 부모-교사 신뢰 관계가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희선, 이은하, 박희경(2013). 어린이집 초임교사의 초기 적응지도 실태 및 인식과 지원을 위한 멘토링 운영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79**, 23- 43.

구수연(2005).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현조, 배지희(2018). 만 1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 과정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의미. **유아교육연구**, **38**(2), 61-90. doi:10.18023/kjece.2018.38.

2.003
김나희, 황윤세(2016). 보육교사의 적응 지도방법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33**(1), 359-378.
김상림(2012).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 개인변인, 또래유능성 및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4), 207-230.
김연숙(2009).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대한 실행연구: 20~24개월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환, 김경숙(2012). 어머니-교사관계, 유아-교사관계 및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문제 간의 관련성. **어린이미디어연구**, **11**(1), 87-104.
김인경(2016). 원아적응일지를 통한 학부모-교사의 의사소통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혜, 이대균(2013).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과정.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69-202.
김현경(2013). 만 1세 영아의 기질에 따른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애현, 조안나(2018).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4), 231-252. doi:10.20437/KOAECE23-4-10
박선준(2016). 어린이집 초기 적응 지원활동이 영아의 적응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 탐색.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준, 김성원(2017). 어린이집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인문사회21**, **8**(4), 983-1010. doi:10.22143/HSS21.8.4.50
박정화, 나종혜(2017).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7**(1), 17-35.
박현주(2016).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관한 관찰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미연, 이순복(2014).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교사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2), 339-360.
보건복지부(2018), **『2018년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송진숙(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 변인간의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167-189.
신용은, 박정희(2014). 보육교사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3), 71-91.
신유림, 윤수정(2009).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련성: 유아 및 교사 지각의 비교. **유아교육연구**, **29**(5), 5-19.
신희남, 조복희(2012). 어머니의 적응지원전략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29-55.
심선영(2016).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 개발. **대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8**(2). 95-113.
안소영(2015). 초기적응 아동중심 집단보육놀이치료가 만2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및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숙경, 문혁준(2010).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 관계가 만 1, 2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31-146.
엄일숙(2013). 영아의 성별 및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경희(2010). 유아-교사의 갈등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및 교사변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소율, 허영림(2013).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프로그램 실태 연구. **교육논총**, **33**, 87-110.
유현숙, 고선옥(2009).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연구**, **7**(2), 17-34.
윤정민, 이주연(2018).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1), 203-225. doi:10.14698/jkcce.2018.14.01.203
이경님, 유혜선(2014).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교사-영아 관계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3**(3), 165-190.

이선영(2015). 직장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영아 초기 적응 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교사 인식 비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세(2012). 영아적응 부모협력프로그램이 영아-교사 애착과 적응 및 부모 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승아(2018). 환경탐색에 기초한 1세 영아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연우, 성영화(2016).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린이집과 관련한 부모역할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한국유아교육학회 2016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613-613.

이은경(2014). 3, 5세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희, 박은주(2012). 영아·어머니·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3**(3), 63-81. doi:10.5723/KJCS.2012.33.3.63

이지애(2013).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및 교사-영아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숙(2008). 영아의 개인특성과 기관의 환경 변인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순(2010). 보육교사의 신념과 보육교사: 영아 상호작용 및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명희, 강성희(2007). 만 1세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관한 소규모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7**(4), 1-32.

임민영(2016). 영아의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명숙, 황해익(2010).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 **아동학회지**, **31**(3), 67-82.

정은숙(2010). M어린이집 만2세 영아의 보육시설 초기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지혜, 서영민(2017). 만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위한 실행 과정과 변화. **유아교육학논집**, **21**(6), 365-389.

정현희, 오선진(2017).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부모-교사 협력, 부모 역할 만족도, 부부관계 갈등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2**(4), 167-189. doi:10.20437/KOAECE22-4-08

정희정(2013). 어린이집 초기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영아교사의 인식 및 현황.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연, 백경숙, 옥경희, 전효정, 전연진(2009). **가족관계**. 파주: 양서원.

조형숙, 김현주, 김명하, 김명정(2017). **유아교육개론**. 서울: 학지사.

지연희(2018). 영아의 기질, 영아-교사 상호작용 및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숙경(2014). 가정 어린이집 영아의 적응에 미치는 보육환경 변인.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선, 정가윤(2013). 12~14개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에 관한 관찰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4), 80-101.

하란영(2011).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맹화(2013).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행정안전부(n.d.).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에서 2019년 7월 17일 인출

허영순, 이주리(2010).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의 관계: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183-194.

홍승혜(2017). 어린이집 영아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runer, J. S. (1973). Organization of early skilled action. *Child Development, 44*(1), 1-11.

Creswell, J. W. (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Datler, W., Ereky-Stevensa, W., Hover-Reisner, N., & Malmberg, L. E. (2012). Toddlers' transition to out-of-home day care: Settling into a new care environment.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35*(3), 439-451. doi:10.1016/j.infbeh.2012.02.007

Hughes, M., Plewis, I., & Pinkerton, G. (1979). Children's difficulties on starting infant schoo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3), 187-196.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유아의 심리적 탄생**(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Snell, E. K., Hindman, A. H., & Belsky, J. (2015). Child effects and child care: Implications for risk and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4), 1059-1076. doi:10.1017/S0954579415000681

William W., & Laura, S. (1987). Parent-teacher communic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36*(2), 182-187.

A Case Study on Mother's Perceived the Adaptation Process and Program of One-year-old Toddlers in Daycare Center

Hyo Jin Chung
Doctoral Student,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Hyun Suk Choi
Doctoral Student,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mother's perceived the adaptation process and program of a one-year-old toddlers in daycare center.

Methods: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four mothers who live in Seoul, South Korea and whose first child enters in daycare center at 18 or 20 months. The data collection method was applied to group interview and th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method.

Results: After the interview data was analyzed, first, they decided to enroll their child to a daycare center after two mothers were pregnant with the second child or the others received a phone call for admission. The first impression of the teacher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choice of admission when mother first visited the daycare center. mother, as well as toddlers who exhibited anxiety, experienced an adaptation process.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teacher, mothers could feel the toddler's adaptation. Second, as for the difference of the adapt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daycare center type through the adaptation process of the one-year-old toddlers,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program guide, the period, the content and the proceeding method.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adaptation program for one-year-old toddlers in daycare center at the national level.

Keywords: one-year-old toddler, adaptation in daycare center, adaptation program, mother's perception

Received July 30, 2019
Revision received August 28, 2019
Accepted September 15, 2019